

## 行政學科의 현황과 발전 방향

尹 在 豊

(서울市立大 行政學科)

### 1. 머리말

韓國大學의 한 敎育課程으로 行政學科가 설립 되기 시작한 지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學科 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敎科課程의 확대와 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그러한 敎育課程을 통하여 배출된 인원이 수십 만 명에 이르며 그들이 韓國의 公的·私的 部門의 發展과 변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制度和 機關의 창업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行政學科의 설립 배경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 보고 현재의 學科 설치 상황과 敎科課程의 경향을 分析하며 學科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황은 學科組織과 敎科課程 등의 사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것이며 發展方向의 모색은 무엇보다도 大學에서의 行政學 敎育課程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어떻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價値의 전체하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行政學科의 設立背景

大學에서의 行政學 敎育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公共行政 現象에 관한 바른 인식과 자각 능력을 갖게 하고 실제 行政問題의 해결을 위한 知識과 技術的 能力을 향상시키고자 의도하는 敎育이라 할 수 있다. 케이든(Caiden)이 行政學敎育이란 “知的인 시민을 양성하고 公共行政業務에의 참여를 증진하며 國家의 문화와 사회의 지배적인 價値에 대한 보다 나은 理解를 형성하고 미래의 公共指導者를 양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sup>1)</sup>고 말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韓國 大學에서의 行政學의 연구와 敎育은 사실상 1950년대에 들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韓國에서의 行政學研究와 敎育은 東洋의 儒敎文化圈에 속하는 日本과 中國에 비해 볼 때에도 최소한 수십 년 뒤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 大學에서 行政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따라서 學問의 制度化로서 行政學科가 본격적으로 창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촉진한 몇 가지 요소를 소개하면 첫째, 제 2차 세계 대전 후 新生國으로 출발

1) Gerald E. Caiden, *Public Administration*(second ed.), Pacific Palisades, Ca. : Palisades, 1982, p.28.

한 韓國 行政의 새로운 요구, 즉 단순히 傳統을 수호하거나 法 秩序를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효율적인 公共問題의 解決과 管理能力이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요구의 실현은 종래의 行政法學的 知識이나 방법보다는 實用主義的인 行政管理 知識과 技術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일부 社會科學者들과 政府 實務家들 사이에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소수이기는 하나 日帝時에 日本의 大學에서 行政學 敎育을 받은 인사들이 1950년대초부터 韓國의 大學에서 연구와 敎育活動에 종사하게 되었다.

셋째, 美國이 주도하는 後進國에 대한 行政分野의 技術援助에 따라 1940년대말부터 韓·美間의 學者와 實務家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특히 政府의 많은 公務員의 美國 行政의 시찰, 일부 소장 학자들의 美國 行政學의 연구 기회가 확대되었다. 現代行政學의 母國이라 할 수 있는 美國의 학자들과 한국의 학자들이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美國의 行政學과 行政學 敎育의 內容이 韓國의 大學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계기로 行政學 敎育이 널리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行政學 敎育을 최초로 시작할 당시의 學科의 설립 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의 大學에 行政學 敎育課程이 나타난 것은 1948년 서울大 法科大學에 行政學科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sup>2)</sup> 같은 해에 釜山大學校에도 行政學科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行政學科의 敎育 내용은 法學科目(특히 公法學)이 중심이 되었으며 ‘行政學’ 科目은 전무한 상태였다. 실제로 法科大學 行政學科의 敎과 과정에 行政學 科目 하나가 최초로 설강된 것은 1954년부터이다. 명색이 學科가 설치되어 6년이 경과한 후에 실제의 敎과목이 敎과 과정에 나타나게 된 셈이었다.

이와 같이 명실상부한 行政學 敎育의 싹이 트면서 여러 大學에 學科의 설립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즉, 1950년대말까지의 경향을 보면 1955년에 高麗大와 中央大, 1958년에 延世大 그리고 1959년에 建國大에 行政學科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특히 韓國의 行政學 敎育 發展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된 것은 1959년 서울大 行政大學院의 설립이다. 이 大學院의 설립은 당시 ICA의 後進國에 대한 技術援助計劃으로 이루어진 美國의 미네소타大學과 서울大 간의 계약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大學院의 설립이 韓國의 行政學 敎育에 지니는 의미는 첫째, 美國의 機能主義的이며 實用主義的인 行政學과 行政學 敎育을 韓國의 大學에 도입하는 획기적인 機關形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둘째, 195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 大學에 부분적으로 行政學 敎育이 도입되었으나, 그 방향이 혼미하던 때에 이 大學院이 설립됨으로써 기존의 敎育機關으로 하여금 行政學 敎育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도록 자극하였다. 셋째, 그 뒤를 이어 새로운 行政學 敎育機關을 창설하도록 촉진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 3. 行政學科의 現況

行政學科의 現況에서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은 우선 行政學科의 설치 현황과 敎科課程의 두 가지에 한정하고자 한다.

#### 1) 行政學科의 設置現況

우리나라의 4년제 大學에 설치된 行政學 敎育課程은 뒤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에서 보면 66개 大學의 學士課程에 行政學科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土地行政, 保健行政, 都市行政 등의 유사 학과는 제외된 숫자이다. 이러한 유사 학과까지 합하면 약 70개 이상의 4년제 大學의 學士課程에 行政學科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行政學科가 설치된 大學의 수는 66개이지만, 分校에 설치된 學科 9개, 夜間學科 17개를 합하면 學科 數는 무려 92개에 이른다.

大學院의 行政學 碩士課程은 43개 大學, 專門大學院(行政大學院) 碩士課程은 30개 大學, 그리고 大學院 博士課程은 31개 大學에 설치되어 있다.

1959년도에 學士課程 6개 大學 6개 學科, 大

2) 서울대학교, 서울大學校 30年史, p. 609.

〈표 1〉 행정학 교육과정의 설치 현황

(1989년 현재)

대학교 형태	학사과정			석사과정	전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사과정 재학생수 <sup>3)</sup>	교수 수
	학과설치 <sup>1)</sup>	분교· 학과설치 <sup>2)</sup>	야간학과 설치					
종합대	51	9	15	42	29	31	15,120	464
단과대	10		2	1	1		2,040	50
개방대	3						800	20
방송통신대	1						20,000	5
경천대	1						240	—
합계	66	9	17	43	30	31	38,200	539

- 1) 종합대의 본교에 설치된 학과 수임.
  - 2) 종합대의 분교(지방 캠퍼스)에 설치된 학과 수임.
  - 3) 신입 학생 수를 학년 수로 곱한 수임.
- \*자료 : 새한출판사, 全國大學總覽, 서울 : 새한출판사, 1989.

學院 碩士課程 3개 大學 3개 學科, 그리고 專門大學院(行政大學院) 1개교였던 것에 비해 보면 실로 엄청난 성장과 증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1950년대에 많은 大學에 學科를 설치하고 있던 法學科나 政治學科도 行政學科의 증가 추세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1989년 현재 法學科는 70개 大學에 政治學科(外交學科 포함)는 38개 大學, 社會學科는 26개 大學에 설치되어 있다.<sup>3)</sup>

韓國의 行政學 教育課程의 증가 현상은 行政學 教育의 발생지로서 韓國의 行政學 教育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온 美國의 경우에 비해 보아도 엄청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88년도 美國 行政大學院協議會(NASPAA)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美國內의 2,000여 개 4년제 大學 중 行政學 學位課程을 둔 大學은 學士課程 73개 大學, 碩士課程 208개 大學, 博士課程 중 Ph. D.가 44개 大學, DPA가 13개 大學에 설치되어 있다.<sup>4)</sup> 우리 韓國의 100여 개 4년제 大學에 설치된 行政學 學位課程의 수와 2,000여 개의 4년제 大學에서 차지하는 美國 大學의 行政學 學位課程을 비교해 보면 우리 韓國에서 行政學 教育이 얼마나 널리 보급되어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 韓國 大學의 行政學 教育課程 중 學士課程 學科의 증가 추세와 그 組織類型의 특색을 살

〈표 2〉 학사과정의 조직 유형과 증가 추세 (%)

유형	연도			
	1959	1969	1979	1989
단과대학 소속 학과 (비종합대)		4 (25.0)	17 (43.6)	14 <sup>3)</sup> (19.7)
법과대 소속	3 (50.0)	4 (25.0)	7 (17.9)	6 (8.4)
법정(경법)대 소속	2 (33.3)	6 (37.5)	14 (35.9)	17 (23.9)
법경(경법)대 소속	1 (16.6)	1 (6.25)	1 (2.5)	2 (2.8)
정경대 소속		1 (6.25)		2 (2.8)
인문사회과학대 소속				2 (2.8)
사회과학대 소속				24 (33.8)
경상대 소속				1 (1.4)
정책과학대 소속				1 (1.4)
정치대 소속				1 (1.4)
정치행정대 소속				1 (1.4)
합계	6 (100.0)	16 (100.0)	39 (100.0)	71 <sup>3)</sup> (100.0)

- 1) 단과대학에는 개방대·방통대 포함.
- 2) 본교와 분교의 학과 조직 유형이 다른 경우는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수임.

펴 보면 위의 〈표 2〉와 같다. 여기서 살펴 보는 組織의 類型이란 學士課程 行政學科의 位相을 기준으로 분류해 본 것이다. 즉, 行政學科의 소속

3) 새한출판사, 全國大學總覽, 서울 : 새한출판사, 1989.

4) NASPAA, 1988 *Directory*, pp.xxiv-xxx.

혹은 위치의 특색에 따라 범주화 해 본 것이다.

앞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9년에는 6개 學科, 1969년에는 16개 學科, 1979년에는 39개 學科, 1989년에는 71개 學科가 71개의 單科大學(非綜合大 單科大 및 綜合大의 單科大 포함)에 설치되어 왔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學科들이 매우 급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이러한 學科들이 1950년대에는 法科大學에 과반수가 속해 있었고 나머지는 法政大學과 法經大學에 소속되는 형태를 이루었다. 그러나 시일이 흐름에 따라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1989년 현재의 경우를 보면, 社會科學大學 소속이 33.8%, 法政大學 소속 23.9%, 非綜合大의 單科大學 소속 19.7%, 法科大學 소속 8.4%, 法經大·政經大 및 人文·社會科學大學 소속이 각각 2.8%, 經商大·政策科學大·政治大·政治行政大學 소속이 각각 1.4%이다.

法科大學 소속의 行政學科는 매우 원저하게 감소하였고 1980년대에 이르러 나타난 社會科學大學의 편제 속에 가장 많은 學科가 소속되었으며 政策科學大·政治大·政治行政大學 등의 새로운 편제가 대두하고 있음이 중요한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韓國 行政이 日帝 行政의 영향을 받아 法志向的이었고 그러한 志向으로 인하여 최초로 行政學科들이 法科大學이나 法政大學에 소속되는 형태를 띠었으나, 그러한 형태를

탈피하고 있음은 실제로 行政學 教育內容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法科大學(혹은 法政大學) 소속으로부터 다른 다양한 組織類型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美國의 大學 行政學科처럼 그 組織類型이 다양하게 변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美國의 學士課程 行政學 教育組織의 類型을 살펴 보면 ① 文理科大學 소속의 學科 혹은 專攻, ② 獨立된 專門職業 大學院 所屬의 課程, ③ 社會科學大學에 소속된 프로그램, ④ 管理大學에 소속된 獨立學科, ⑤ 專門職業 大學院 소속의 복합적인 명칭을 가진 獨立學科, ⑥ 綜合學問의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sup>5)</sup>

## 2) 教科課程

學科란 하나의 教育組織이며 교육 조직의 명실상부한 특성은 그것이 설정하고 추구하는 教科課程 속에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行政學科의 學士課程을 중심으로 教科課程의 주요 내용과 경향을 살펴 보려고 한다. 살펴 볼 대상은 첫째로 教科課程에서 行政學이 차지하는 비중, 둘째로 行政學 科目들 간의 分野別 비중, 셋째로 채택 빈도별로 본 行政學 教科目的 內容 등이다.

### (1) 行政學의 比重

行政學科의 教科課程 안에서 순수한 行政學 分

<표 3> 행정학의 비중(1950~1980년대)

(단위: %)

시 기	분 야	행 정 학	법 학	정 치 학	경 제 학	기 타	합 계
1950년대	1954~1958	6.9	49.6	20.6	9.9	13.0	100.0
1950년대	1959	15.3	43.0	17.5	10.2	13.9	100.0
1960년대	전 기	21.0	37.0	16.4	11.4	14.2	100.0
	후 기	36.2	25.6	13.4	14.6	10.2	100.0
1970년대	전 기	40.7	33.6	8.9	9.9	6.9	100.0
	후 기	54.6	22.1	6.2	9.4	7.7	100.0
1980년대	전 기	62.2	21.8	5.6	6.0	4.0	100.0
	후 기	71.0	16.6	4.6	4.1	3.7	100.0

\*자료: 尹在豊, 상계서.

5) 尹在豊, 韓國大學의 行政學 教育內容의 分析—美國大學과의 比較研究, 文敎部 自由公募課題 研究報告書, 單行本, 1988, pp.45~48.

野의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의 문제는 行政學 敎育을 도입하던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 왜냐하면 行政學은 과거에 韓國의 大學敎育에 없었던 새로운 분야이고 더우기 그 敎科課程은 行政學의 학문적 성격상 다른 인접 학문 분야와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敎科課程 體系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行政學科의 敎科課程 안에서 行政學分野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0 여년간 그야말로 괄목하게 신장되어 왔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50 년대에 行政學 敎育이 도입될 당시에는 行政學科의 敎科課程 안에서 行政學이 차지한 비중은 매우 낮았다. 그것은 앞의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6.9%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法學分野가 49.6%, 政治學이 20.6%를 차지하는 실정이었다. 行政學科의 敎科課程 안에서의 行政學分野는 문자 그대로 이름뿐이고 실제로 명실 상부한 비중은 法學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일이 흐를수록 行政學分野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신장되어 1980 년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行政學分野가 71%, 法學分野는 16.6%, 政治學은 4.6% 등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제 行政學科의 敎科課程 안에서 行政學分野는 뚜렷하게 그 중심적인 位相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行政學의 分野別 相對的 比重

行政學科 敎科課程 중 行政學分野 안에서 각 세부 분야별 상대적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는 <표 4>에서 그 대강을 엿볼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의 大學 行政學科에 行政學 敎育이 시작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行政學分野에서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해 온 것은

管理分野이다. 그 내용은 組織管理, 人事行政, 財務行政, 計劃論, 事務管理 등 소위 'POSDCO RB' 중심의 전통적인 교과목들이다. 이들 과목들이 1960 년대 前期에는 무려 50%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후 현재까지도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行政學分野에서 이러한 機能的 管理科目들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도 1960 년대 후기부터 계속 그 비중이 감소하여 1980 년대 후기에 와서는 2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行政學概論 등의 기초 분야와 比較 行政, 發展行政, 地方行政 및 韓國政府論 등의 분야는 비교적 안정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管理分野의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調查方法, 計量分析, 政策分野의 과목이 지난 10 여년 사이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政策分野는 政策科學, 政策分析 및 政策評價 등의 다양한 과목으로 세분화되며 전체적으로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질 추세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1970 년대 이래 특히 눈에 띄는 行政學의 연구와 敎育의 새로운 분야라 할 수 있다. 비중이 작기는 하나, 1980 년대에 이르러 行政哲學과 倫理科目이 등장한 것도 특기할 만한 현상이라 하겠다.

(3) 채택 빈도별로 본 行政學 敎科目

行政學 敎科目 수는 지난 30 여년 동안 계속적으로 급증해 왔다. 여러 大學에 설강된 명칭을 달리하는 行政學 敎科目의 수를 보면 뒤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54~1958 년 사이에 6 과목, 1959 년 이후 1960 년대의 전기에 15 과목, 후기에 26 과목, 1970 년대의 전기에 33 과목, 후기에 37 과목, 1980 년대의 전기에 62 과목, 후

<표 4> 행정학의 분야별 비중(1960~1980년대)

(단위: %)

시 기	분 야	기초	관료제	관리	조사 방법 및 계량	정책	한국 행정 및 정부	비교 발전	지방 (지역) 및 시 행정	행정학 및 윤리	행정사	기타	계
1960년대	전 기	15.2		50.0	4.3		4.3		13.1			13.1	100.0
	후 기	12.0	1.4	34.8	7.6	2.2	3.2	8.7	7.6		2.1	20.6	100.0
1970년대	전 기	13.7	1.1	33.5	5.0	2.2	5.0	7.7	9.3		1.1	21.4	100.0
	후 기	16.3	1.6	28.3	5.3	3.3	4.4	9.2	10.3		1.6	19.6	100.0
1980년대	전 기	12.8	2.5	26.3	7.1	6.4	5.3	8.2	8.9	1.1	1.4	19.9	100.0
	후 기	12.6	2.0	24.0	8.8	7.9	4.7	7.3	8.8	1.5	1.5	21.1	100.0

\*자료: 尹在農, 삼계서.

〈표 6〉 채택 빈도별로 본 행정학 교과목 및 새로 개설된 주요 과목을

빈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54~1958	1959년	전	기 후	전	기 후	전	기 후
모든 대학 (100%)이 채택한 과목	1 행정학 (개론)	1 행정학 (개론)	4	4	4	4	4	4
50% 이상 대학이 채택한 과목	1	5	2	9	7	13	14	13
25% 이상 대학이 채택한 과목	4	9	1	4	9	11	7	12
25% 미만			8	9	13	9	37	36
계	6	15	15	26	33	37	62	65
새로 개설된 주요 과목들	행정학(개론) 행정조직론 공무원제도론 지방자치론 행정학연수 행정학특강	조직관리론 인사행정론 사무행정론 제직론 한국정부론 부처행정론 조사방법론 행정통계론 비교정부론 원서강독	지방행정론 행정관리론 사무관리론 공기업론 정부회계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공공관계론 정책론 행정사 국제행정론 관료제 행정과정론 행정통계론 인간관계론 도시행정론 지역사회행정론 등	행정국가론 행정철학사 행정법론 행정학방법론 행정발전론 정책결정론 (정책형성론) 행정입법론 세정론 등	정책학 (정책과학) 한국행정론 환경행정론 비교정부기구론	행정계량분석 관리과학 행정철학 행정인반이론 정책분석론 행정평가론 정치행정론 행정사태연구 행정과 의사결단 행정전문론 행정통계론 미국행정론 행정과 사회경제 노동행정 사회행정 차원행정 인사정책 등	행정문화론 정책평가론 사회경제정책론 등

\*자료 :尹在堯, 상계서.

기에 65 과목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敎科目이 여러 大學에서 채택되는 빈도 별로 살펴 보면 1960년대 초 이래 계속적으로 모 든 大學이 공통적으로 채택해 온 科目은 行政學 概論, 組織管理論(혹은 組織理論), 人事行政論 및 財務行政論 등 4 과목이며, 50% 이상의 大學이 채택하는 과목은 1970년대 이전에는 10 과목 이내, 1970년대 후기 이후는 10여 과목에 한정된다. 韓國의 大學 行政學科에 설강된 總科目 중 거의 과반수가 25% 미만의 大學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설강된 상태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行政學科의 敎科課程은 짧은 行政學 敎育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양적인 급성장과 질적인 변화를 추구해 왔음이 분명하다. 다만 敎科目的의 개발과 같은 질적인 변화의 추구가 韓國 大學으로부터 內生的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아직도 美國 行政學 敎育의 변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4. 行政學科의 發展方向

韓國의 大學에서 行政學 敎育이 시작된 후 최근까지의 일반적인 경향은 學科 組織의 창설과 行政學 敎育機會의 量的 성장과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에 그와 같은 양적 성장과 확대가 눈부시게 전개되어 왔다. 한 國家 內의 고등교육 기관의 수에서 차지하는 行政學科의 비율 면에서 볼 때 韓國은 現代 行政學 敎育의 母國인 美國보다도 상대적으로 몇 곱절이나 더 많은 大學에 行政學科를 설치하고 있으며, 기타의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정도로 行政學 敎育이 보급되어 있다.

敎科課程에 있어서도 1950년대에 美國의 영향을 받은 후 계속적으로 美國 大學의 行政學 敎科課程에 나타난 과목들이 우리의 敎育課程에 신속하고 다양하게 반영되어 왔다. 물론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검증하여 토착화하려는 노력도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적인 경향은 수용과 모방이 훨씬 앞섰다.

그러나 이제는 量을 質로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고 韓國 大學에서 이루어지는 行政學 敎育이 韓國의 公共問題解決에 한층 더 효율적이고 적절(relevant)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새롭게 선택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몇 가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敎科課程의 改編

敎科課程의 改編을 위해서 고려할 사항은 첫째, 과거의 學問的 遺産의 계승과 未來社會의 變化에 대응하는 새로운 敎科目的의 개발이 조화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의 行政學科 敎科課程은 비교적 과거의 연구와 敎育 경향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未來社會, 특히 韓國의 未來社會에 도래할 變化에 대응하여 敎育시켜야 할 行政學 敎科目的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韓國 社會의 미래에 일어날 변화는 대체로 '민주주의의 신장, 지방 분권화, 국제 교류의 증대, 등서 진영의 개방화 및 남·북한 관계의 개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의 복잡성 증대, 정보화 사회, 형평과 효율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이러한 變化에 대응할 적절한 敎科目的을 연구·개발하는 데 行政學 敎育을 담당하는 많은 사람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둘째, 行政學科 敎科課程 안에서의 行政學分野와 그 인접 社會科學 과목간의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行政學 敎育이 시작된 후 최근까지 行政學分野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몰두해 왔을 뿐 行政學分野 과목과 인접 社會科學(政治學, 法學, 經濟學 등) 과목이 어떤 상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통한 설계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제 行政學分野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확대되었으므로 스스로 行政學者들이 중심이 되어 行政學 과목과 다른 社會科學 과목이 行政學科 敎科課程 안에서 어떠한 關係를 정립해야 할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敎科課程의 垂直的인 體系를 확립해야 한다. 즉, 學士·碩士 및 博士의 敎科課程이 그 敎育段階에 따라 體系化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6) 이종범·정용덕·김준한,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pp.14~23.

大學의 行政學 敎科課程은 현재까지 대체로 學士課程의 그것을 개편하고 체계화하는 데는 주력해 왔으나, 碩·博士課程과의 연계를 통한 하나의 체계적인 垂直的 課程을 개발하는 데 미흡하였다. 이러한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각 課程을 통해서 어떤 인재를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敎育目標가 뚜렷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그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敎科科目이 선택되고 組織되어야 한다.

넷째, 民主主義의 公共哲學과 倫理敎育을 강화해야 한다. 그간의 行政學 敎育은 대체로 機能主義的 敎育을 통한 실용적인 기능인의 육성에 치우쳐 왔다. 이제는 民主主義와 人間主義가 더욱 강조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民主主義의 人 公共哲學과 倫理敎育이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民主的인 市民과 公共의 人物을 육성하는 데 行政學 敎育이 기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敎科課程에 實務修習制度(internship)를 도입해야 한다. 現代 行政學 敎育의 모국인 美國 大學의 行政學 敎科課程에는 반드시 實務修習이 포함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行政學 實務經驗을 얻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行政의 理論과 實제를 통합하며 장차에 公共機關의 근무를 준비하도록 돕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大學의 行政學科에는 그러한 제도가 全無한 실정이다. 行政學 敎育이 그 성격상 公共職業敎育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實務修習制度는 반드시 그 敎科課程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汎大學的인 行政學 敎育 評價機構가 설치되어 그 기구에서 模型敎科課程을 개발하고 敎育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美國의 NASPAA와 같은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 (2) 優秀敎授의 確保

學科組織과 敎科課程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지더라도 敎育을 직접 담당할 敎授가 충분히 확보되고, 특히 그들이 우수하고 유능한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大學 行政學科의 평균 전임 교수는 약 6명이라고 한다.<sup>7)</sup> 이러한 인원은 학생 수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학생 지도의 원활화를 위해서 敎授 인원을 조속히 늘려야 하며 敎育의 秀越性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수한 敎授를 확보하는 일이 대부분 大學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3) 敎授方法의 改善

우리나라 大學 行政學科에서 이루어지는 敎授方法을 보면, 大學院課程에서는 세미나 혹은 토론식 방법을 많이 적용하는 편이지만, 學士課程의 경우는 거의 전적으로 講義式 위주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學生들의 참여와 問題解決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토론식, 시청각敎育, 시찰 등의 방법을 많이 도입해야 할 것이다.

## (4) 卒業生의 行政機關 採用擴大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行政學科는 학생들에게 公共行政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차에 公共行政分野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학문적 준비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行政學科의 졸업생이 行政機關에 많이 採用되는 것은 行政學科의 기본적인 목적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大學의 行政學科 졸업생들 중 行政機關에 진출하는 사람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대부분의 졸업생이 私企業體와 기타의 분야에 진출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行政學科의 목적을 잘 달성하지 못하는 하나의 징표이다. 그러므로 行政學科가 그 목적대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졸업생의 行政機關 採用을 擴大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行政學科와 政府間의 官·學協同體制를 폭 넓게 확립하고, 在學生의 實務修習을 制度化하며 公務員 採用 시험 과목을 行政學科의 敎科課程과 밀접히 관련시키도록 해야 한다.

## 5. 맺는 말

위에서 우리는 韓國 大學에서 行政學科가 설립된 배경과 현황 및 發展方向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위에 언급한 發展方向에 한 가지만 더 부연하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그것은 韓國 大學의 行政學科가 그 지향하는 目的에 따라 계속

7) 이종범 외, 전거서, p.9.



發展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行政學 敎育을 담당하는 현재의 학자들이 그 敎育의 社會的 需要를 창출해 가는 적극적 노력이 先行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훌륭한 지혜와 노력을 통하여 學科組織을 쇄신하고 敎科課程을

개편하며 교수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敎育의 秀越性을 확보하고 그 社會的 需要를 높이는 것이다. 社會的 需要를 창출하는 敎育이야말로 진정한 公共的 職業敎育으로서의 行政學 敎育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

### <投稿案内>

「大學敎育」 제48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敎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敎授 및 社會奉仕 활동 중에서 대학 社會에 시사할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敎育 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方案에 관한 논의와 外國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본문에 게재될 글들에 대한 反論 원고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敎授談論                                      ③ 學科別 敎育課題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 (②는 15매 또는 23매)

3. 期 限—1990년 9월 20일

4. 稿 料—매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敎育協議會

(TEL 783-3891, 780-7942, FAX 780-8311)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하며,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